

여성 팀 소감

-과에서의 첫 춤-

16학번 강민지

춤을 춰본 적이 없어서 정말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미네르바의 향연 축제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 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. 내가 과연 이 춤을 잘 출 수 있을까? 과연 잘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정말 춤이라는 것을 처음 춰보기 때문이죠. 하지만 누나들의 리드 하에 한 동작씩 한 동작씩 연습을 꾸준히 하고 함께 맞추어 나갈 때 점점 완성되어짐을 느꼈습니다. 그러면서 춤의 매력을 느꼈고 정말 뿌듯한 마음이 정말 크게 들었습니다. 축제 당일 날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결과가 좋게 끝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무리 지었다는 것에 뿌듯했습니다.

정말 많이 부족했었는데 과분한 호응 많이 해주신 동기들 선배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. 또 같이 공연한 선배님들 동기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리고 춤 공연을 지켜봐주신 관객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관객 분들의 호응을 보면서 춤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나름대로 뿌듯함도 정말 크고요. 그리고 춤 팀 뿐만 아니라 연극팀, 필드, 과 학생회 분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한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말 하고 싶습니다.

매일 늦게까지 함께 연습했던 시간들, 축제를 준비했던 시간들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흥이날 철 철학과 나하~~